



▲3차 지부집단교섭이 지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 30일, 3차 지부 집단교섭 열려

### 2026년 중앙교섭 · 지부집단교섭 요구안에 대한 질의응답 이어져

4차 지부집단교섭부터 현장을 순회하며 사업장에서 본격적인 교섭이 진행된다. 4월 30일 진행된 3차 교섭에서 지부 집단교섭 요구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쳤기 때문이다.

30일 3차 지부 집단교섭은 15시경 지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교섭에 앞서 교섭위원들은 사전회의를 열고 향후 교섭 일정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서광석 열사 투쟁 등으로 중앙교섭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 논의 결과 지부 집단교섭을 한차례 연기하는 것으로 했다. 관련 조성민 지부장은 교섭 자리에서 “중앙교섭이 현재 연기된 상태다. 차기 중앙교섭이 5월 12일 진행된다. 이러면 중앙교섭보다 지부집단교섭이 앞서는 양상이 된다”며 “차기 교섭부터는 사업장을 순회하는데 이에 대해 사용자협의회도 논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연기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부산사용자협의회도 연기에 동의했다.

3차 본교섭은 질의응답을 가지는 시간으로 사용자협의회에서 질의가 있었다. 질의는 ▲초기업 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 지자체 요구 ▲지부 감사위원 활동시간 부분이었다. 초기업 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 지자체 요구 부분 질문은 ‘산업·업종·지역의 확장 의미와 의제’였다. 질문에 이어 사용자협의회는 실효성을 이유로 우려도 표명했다. 또, 새로운 교섭틀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남겼다.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이 될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취지 발언도 있었다. 초기업교섭의 생소함도 비쳤다.

이에 대해 지부 교섭단은 사용자협의회 의문과 우려에 대해 답변을 진행

했다. 조성민 지부장은 “초기업 교섭 활성화 노사공동 지자체 요구는 금속노조와 체결한 협약 적용을 더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지는 요구”라며 “올해 협약 체결을 통해 틀을 만들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면 금속산업 최저임금 적용 확대, 지자체 선거 정책 공약 요구 등으로 구체화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외도 작업복 세탁소 등 초기업 교섭 활성화 요구 의미에 대해 교섭단이 다양하게 설명했다. 초기업 교섭 활성화 요구에 대해서는 문서로 전달하기로 했다. 감사위원 활동시간과 관련해서는 지부 감사위원 사업장이 어디인지 간단히 확인하고 질의를 끝냈다.

한편, Man-es 부산양산사용자협의회 성원 포함 여부에 대해 노사 의견을 나눴고 추후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지난 28일 세계신재사망추모의 날을 맞아 2026 부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이 열렸다.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HJ중공업 건설부문이 선정됐다.



▲지난 28일 진주CU물류센터 앞에서 열린 서광석 열사 정신계승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지부 간부 조합원이 참석했다. 이날 대회 이후 29일 교섭에서 노사가 잠정합의했다.



▲62차 임시대의원대회에 참가한 대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금속노조]

# 금속노조, 임시대의원대회서 7·8·9월 연속파업 결정

사회적 지지 확대하는 파업 벌일 것...

6.10 금속노조 1만 간부 서울 상경 투쟁

5월 중 현대자동차 등 원청 규탄 투쟁도 연속적으로 펼칠 것

금속노조가 2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26년 파업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파업투쟁은 시기집중 형식의 파업 형태를 띠 예정이다. 파업은 7월 15일 1차 파업을 시작으로 8월 26일, 9월 2일 연속된다. 7월 15일은 ‘원청교섭 쟁취! 노동기본권노조할권리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한다.

62차 임시대의원대회는 27일 오후 1시경 단양 금속노조 교육연수원에서 열렸다.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박상만 위원장은 “올해 모든 노동자의 고용보장 쟁점화와 원청교섭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대하는 파업을 벌일 것”이라며 “업종별 산업정책에 노동조합 참여가 보장되는 체제 또한 반드시 쟁취하자”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원청교섭 요구를 외면하는 대표 원청기업들에 원청교섭을 촉구하는 투쟁의 현장 최선두에서 파업과 투

쟁을 조직하겠다”라며, “하청 노동자의 조합원 수를 배가하기 위한 조직화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2026년 파업 투쟁의 목표로 ▲양질의 일자리 공동화 저지 ▲해외 현지 생산 확대 대책 ▲AI를 비롯한 산업전환과 기술혁신 노동 대책 ▲취약한 내수 기반 극복 ▲간접고용 노동자 해고 금지 고용안정 등 ‘모든 노동자의 고용 보장’ 대책을 사회적 과제로 정립할 것을 수립했다. 또한, 사회 양극화 심화 문제 해결책으로 기업 단위 교섭을 넘어선 ‘초기업 교섭’ 활성화와 ‘근로계약’ 체결자만을 사용자로 보던 기존 기업별 교섭 체제 기준을 흔들며 실질 지배·결정력을 쥔 원청의 동일성을 바탕으로 둔, 하청노조 단위의 ‘원청교섭’ 획득 및 확산을 주요 목표로도 정했다.

노조는 이날, 올해 단체교섭 투쟁을 통해 ▲AI의 노사 합의 전제 도입 ▲AI 기술 정보 요청 시 투명한 공개 ▲간접고용 노동자 노조 가입 시 불이익 및 해고 금지 ▲관계기관에서 실질 지배·결정 사용자라 결정된 경우 간접고용 노동자 원청교섭 응낙 등의 단체협약을 최대한 관철해 내겠다는 ‘쟁취 목표’

도 정했다. 이와 더불어 현 금속노조의 유일한 초기업 교섭체인 중앙·지부집단 교섭 참가 쟁취도 병행한다.

이날 대정부 등 협의 요구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초기업 교섭 활성화 정책 및 제도 마련 ▲‘원청교섭’을 포함한 모든 초기업 교섭에 기업 단위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예외 제도화 ▲자동차 노정 내지 노사정 협의틀 구성 ▲조선 노사정 협의의 구조 마련 ▲K-스틸법의 기본계획·실행계획 수립·평가 체계에 노조 참여 보장 ▲외국인투자·사모펀드 기업 규제 ▲모든 노동자 작업중지권 온전한 보장 및 불이익 금지 ▲타임오프 상한제 철폐 및 기준제·노사자율제로의 전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법정 정년 연장 및 국민연금 개혁 등이다.

한편, 이날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장시간 토론 끝에 회계 공시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노조는 5월 중 포스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원청교섭에 불응하는 대표 원청을 규탄하는 집단 항의 투쟁도 연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62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14기 감사위원 보궐선거도 진행됐다.

[금속노동자]